

한국도레이과학기술상 장석복·장정식씨 수상



장석복

장정식

기초연구·응용부문에 각각 선정
4개 연구팀엔 年 5000만원 지원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이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은 '제1회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장석복 교수와 서울대 장정식 교수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초연구 부문 수상자인 장석복 교수는 유기촉매 반응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자다.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락탐 골격을 효율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촉매반응 연구'는 30여 년간의 난제를 풀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응용연구 부문 수상자인 장정식 교수는 기능성 고분자 나노 재료의 제조 분야에서 체계적 연구를 통해 국내 고분자 나노 재료 분야의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단은 다음 달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이들에게 각각 상금 1억원을 수여한다. 시상식에는 닛카쿠 아키히로 일본 도레이 사장 등이 참석하며,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노요리 료지 박사가 초청돼 '화학의 역할과 연구자로서의 도전'을 주제로 강연한다.

재단은 이와 함께 새로운 연구 활동을 개척하려는 신진 연구자도 지원하기 위해 화학·재료 분야의 기초·응용 연구 부문에서 총 4개 팀을 선발했다. 기초연구 부문은 이만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은성 포항공대 화학과 교수 연구팀이, 응용 부문은 왕건욱 고려대 KU-KIST 융합대학원 교수와 이윤정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각각 선정됐다. 각 연구팀은 매년 5000만원씩 3년간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은 올 1월 화학·재료 분야와 미래 인재 육성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한국 내 도레이 계열사들이 참여해 설립했다. 신은진 기자

한국도레이, 과학재단 설립 혁신적 인재양성 팔 걷었다

과학기술상에 교수 2명 선정 4개 연구팀에 기금도 지원

한국도레이가 과학진흥재단을 설립하고 한국의 과학 발전과 창의적인 연구자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한국도레이는 올해 1월 한국 내 도레이 관계사가 참여해 공익재단인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을 설립했다. 한국에서 과학기술의 근본이 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화학 및 재료 분야와 미래 인재 육성 분야를 집중 지원하자는 취지에서다. 도레이그룹은 일본 외에도 한국을 비롯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에도 과학진흥재단을 설립해 진출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도레이 관계사는 “한국의 우수한 과학자가 존경받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화학을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양성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첫걸음으로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이사장 이영관)은 제1회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수상자 및 과학기술연구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19일 발표했다. 재단은 존경받는 과학문화 정착을 위해 신설한 과학기술상과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상과 연구기금은 지난 4~6월 공모해 7~8월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패널토론 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후 9월 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과학기술상은 화학 및 재료 분야의 기



장석복 교수



장정식 교수

초와 응용연구에서 생애 동안 탁월한 업적으로 과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시상한다.

과학기술상 수상자로 기초연구 부문 장석복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 응용연구 부문 장정식 서울대 화학생명공학부 교수 등 2명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1억원과 상패를 수여한다.

아울러 재단은 새로운 연구활동을 개척하려는 열정적인 신진 연구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재단은 과학기술상과 동일한 화학 및 재료 분야의 기초와 응용연구에서 각 2팀씩 총 4팀을 선정했다. 창의적인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장기적 시각으로 연구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기초는 이민재 서울대의과대학 교수 연구팀과 이은성 포항공대 화학과 교수 연구팀, 응용은 왕건욱 고려대 KU-KIST 융합대학원 교수 연구팀과 이윤정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연구팀을 선정했다. 연구 분야는 의약, 촉매, 전자소자, 이차전지 등 다양하다. 각 연구팀에는 매년 5000만원씩 3년간 연구비를 지원한다. 시상식은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다. 황순민 기자

제1회 도레이 과학기술상 장석복-장정식 교수

과기연구기금 지원대상자엔
이민재 교수 연구팀 등 4팀 선정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은 장석복 KAIST 화학과 교수(기초연구)와 장정식 서울대 화학 생물공학부 교수(응용연구)를 제1회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월 공익재단으로 출범한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은 화학 및 재료 분야 연구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들을 선정해 각각 상금 1억 원과 상패를 수여하기로 했다.

재단은 새로운 연구 활동을 개척하려는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연구기금 지원대상자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기초연구 분야에선 이민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연구팀과 이은성 포스텍 화학과 교수 연구팀이, 응용 분야에선 왕건욱 고려대 KU-KIST 융합대학원 교수 연구팀과 이윤정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장석복 교수 장정식 교수 왕건욱 교수



이민재 교수 이윤정 교수 이은성 교수

연구팀이 선정됐다. 각 연구팀은 매년 5000만 원씩 3년간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상식은 다음 달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학계 주요 인사와 닛카쿠 아키히로 도레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한국경제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제정해 인재 육성

1회 수상자에 장석복·장정식 교수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이 국내 과학 발전 지원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도레이 과학진흥재단은 한국의 과학 발전, 화학 및 재료 분야 진흥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지난 1월 출범했다. 재단 이사장인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은 평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을 위해선 과학 역량 혁신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은 19일 장석복 KAIST 화학과 교수와 장정식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를 ‘제1회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기초연구부문 수상자인 장석

복 교수는 유기촉매반응 분야에서 지난 30여 년간의 난제를 해소해 유기합성, 의약화학, 재료과학 등 여러 분야에 공헌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응용연구부문 수상자인 장정식 교수는 기능성 고분자 나노재료의 제조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두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원과 상패가 각각 수여된다.

재단은 잠재성 높은 연구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연구기금 수혜자도 발표했다. 기초부문은 이민재 서울대의 과대학 교수 연구팀과 이은성 포스텍 화학과 교수 연구팀, 응용부문은 고려대 KU-KIST 융합대학원 교수 연구팀, 이



장석복 교수 장정식 교수

윤정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연구팀 등 총 네 팀이 선정됐다. 각 연구팀에는 3년간 5000만원씩 연구비를 지원한다.

시상식은 다음달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다. 닛카쿠 아키히로 일본 도레이 사장 등이 참석하며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노요리 료지 일본 연구개발전략센터장이 강연한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도레이 과학기술상에 장석복·장정식 교수

‘인류 이롭게 하는 기술’ 1억 지원
유기촉매 연구, 전자코 개발 성과
3년간 연구비 지원 4개팀도 선정

1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이사장 이영관)은 19일 제1회 과학기술상 수상자로 기초연구 분야에서 장석복 카이스트 교수, 응용연구 분야에서 장정식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은 지난 1월 ‘인류를 이롭게 하는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도레이그룹 4개사가 공동으로 출연해 공익법인으로 설립했다. 과학기술상과 연구기금은 지난 4~6월 공모를 받아 7~8월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패널토론 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달 재단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장석복 교수는 유기촉매 반응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이자 세계 정상급 연구자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발표한 ‘탁탐 골격을 효율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촉매반응 연구’는 지난 30년



장석복 교수



장정식 교수

간의 난제를 해소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2년부터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을 이끌어왔다.

장정식 교수는 가능성 고분자 나노재료 제조 분야에서 국내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스마트 센서 분야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함께 ‘전자코’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최근에는 ‘전자 혀’를 개발하는 등 독창적 연구결과를 인정받고 있다.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하는 신진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과학기술 연구기금 지원 대상자로는 기초·응용연구에서 각 2팀씩 4팀을 선정했다. 의약·촉매·전자소자·2차 전지 등 화학·소재 분야에서 선정했으며 각 연구팀에는 매년 5000만원씩 3년 동안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재단은 기초연구 분야에서 이민재 서울

대 의과대학 교수 연구팀과 이은성 포항공대 화학과 교수 연구팀을, 응용연구 분야에서 왕건욱 고려대 KU-KIST 융합대학원 교수 연구팀과 이윤정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연구팀을 선정했다.

도레이그룹은 일본과 아시아 지역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에도 과학진흥재단을 설립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해왔다. 재단 측은 “도레이는 1926년 설립된 세계적 화학·소재기업으로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데에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며 “우수한 과학자가 존경받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과 차세대 화학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이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다. 시상식에는 학계 주요 인사와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이사장, 심사위원을 비롯해 닛카쿠 아키히로(日覺昭廣) 도레이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다. 도레이 사외이사이자 2001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노요리 료지(野依良治) 박사의 강연도 있을 예정이다.

이동현 기자 offram@joongang.co.kr

파이낸셜 뉴스

2018년 09월 20일 (목)
30면 인물

장석복·장정식 교수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이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은 ‘제1회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에 KAIST 장석복 교수와 서울대 장정식 교수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초연구 부문 수상자인 장석복 교수는 유기촉매 반응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탁탐 골격을 효율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촉매반응 연구’는 30여년간의 난제를 풀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응용연구 부문 수상자인 장정식 교수는 가능성 고분자 나노 재료



장석복 교수



장정식 교수

의 제조분야에서 체계적 연구를 통해 국내 고분자 나노 재료 분야의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